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년 5월 15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뉴욕주에서 에이즈 전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 법안 발표

법안을 열람하려면 [여기를 클릭](#)하고 법안 메모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여러 새 이니셔티브를 통해 뉴욕주에서 HIV/에이즈 전염을 종식시키려는 그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뉴욕주를 HIV/에이즈 감염자들에게 양질의 치료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적 리더로 만든 여러 조치를 토대로 합니다.

“뉴욕주는 에이즈 퇴치 싸움에서 모범으로 리드하고 있는데 이 법안의 이니셔티브는 우리가 이미 이룩한 진보를 토대로 쌓아가는 데 관건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검사를 늘리고 치료 장애물을 철폐함으로써 뉴욕주는 에이즈 전염을 종식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법을 취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병이 먼 기억이 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에이즈 전염을 막는 데 있어서 큰 진보를 하였으며 결국 뉴욕주에서 이 전염병의 종식으로 이끌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과 제공해 주신 자원 덕분에 우리 주는 에이즈와의 투쟁에서 전국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뉴욕주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으며 더 많은 HIV 감염자들이 이제는 치료를 받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nding the Epidemic Task Force의 공동창설자이자 **Housing Works, Inc.**의 사장 겸 CEO인 **Charles King**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Housing Works**는 에이즈 전염병을 2020년까지 종식시키기 위해 **EtE** 청사진에서 그 목표 달성에 긴요한 것으로 파악된 법안을 추진하는 **Cuomo** 지사의 지속적 리더십을 보니 기쁩니다.”

Cuomo 지사의 법안은:

- HIV 관련 정보를 케어 코디네이터와 케어 매니저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케어에 연결되고 유지될 사람의 수를 늘릴 것입니다.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이 주에서 HIV 전염병을 더 잘 이해하고, 환자 결과를 향상하며, 새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 주 법률 변경으로 HIV 감염자의 케어 연계 및 유지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 제공자들과의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이 법률 위에서 케어 코디네이터 및 케어 관리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 HIV 검사 노력을 간소화하고 뉴욕주 HIV 검사법의 연령 상한을 현재의 64세 이상으로 늘릴 것입니다.** HIV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HIV 검사 대상자를 늘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알아서 본인 건강뿐만 아니라 파트너의 건강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염되었지만 치료 받지 않는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모든 신규 감염의 약 절반이 자신의 HIV 상태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기 치료는 감염자의 건강을 개선합니다. 뉴욕주에서 HIV 감염으로 진단되는 모든 생존자들의 절반이 50세 이상이기 때문에 HIV 검사 제안을 위한 연령 상한 연장이 필요합니다. 이 조치는 연령과 관계 없이 모든 성인에게 HIV 검사 제안을 요구할 것입니다.
- 미성년자들이 부모 동의 없이 생명을 구하는 HIV 치료 및 예방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러한 케어의 비밀 유지를 보장할 것입니다.** 미성년자들이 부모나 후견인 동의 없이도 STD 및 HIV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HIV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HIV의 많은 새 케이스가 젊은이들 사이에 있으며, HIV 치료 지연은 병의 진행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바이러스 전파로 이어집니다. 이 조치는 HIV 음성자가 감염될 위험을 줄여 HIV 음성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약인 노출전 예방약(PrEP)을 음성인 젊은이들이 입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감염을 막기 위해 STD 선별검사 및 노출후 예방약 이용을 위한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뉴욕주의 STD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100,000 건 이상의 매독, 임질 및 클라미디아가 있습니다. 이 조치는 공인 간호사가 이러한 STD를 스크리닝하는 범위의 변경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 조치는 약국을 통한 노출후 예방약(PEP) 이용을 늘리고 지속적 예방 지원을 위해 위탁 및 후속 추적의 비상 상황에서 PEP 사용을 진흥할 것입니다.

주지사가 추진하는 이 법안은 신규 HIV 감염의 수를 년 약 3,000에서 2020년까지 750으로 줄이기 위해 검사와 치료를 확대하려는 최근 노력일뿐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이미 효과를 내었습니다. 이 전염병의 시작 이래 처음으로 17개월 이상 모자간 HIV 전파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주지사가 뉴욕주의 에이즈 전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이래 이 주는 치료 확대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Medicaid에 등록된 사람들 사이에 PrEP 처방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주정부는 이용 확대를 지속하기 위해 3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에이즈를 퇴치하기 위해 주정부가 매년 투입하는 25억 달러 이외에 여러 프로그램 이니셔티브에 2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달러의 사용은 케어를 받고 있지 않던 6,000여 HIV 양성 환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그들이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치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